



브라질 경제 현황과 시사점

채원영 연구원

-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과 경기 후퇴, 소비자물가 상승과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브라질 경제 전망이 불안해지고 있음.
 - 2013년 9월 이후 2015년 3월까지 헤알화는 약 30% 급락하였으며 구조적 경제 취약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개혁 조치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 특히 하반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로 인한 국제유가 추가 하락, 외국인 자금이탈 등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브라질 경제는 투자부진과 무역적자 심화로 2013년 대비 2.4%p 하락한 0.1%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물가상승률은 6.3%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10월 대선 등 정치적 혼란으로 헤알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경기 둔화와 물가상승,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 등 경기 불안요소와 함께 2014년 10월 치뤄진 대선 등으로 헤알화 통화가치는 2013년 9월 이후 BRICs 및 여타 신흥국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3년 3.3%에서 2014년 6.1%로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의 경우 2013년 3.6%에서 2014년 4.24%로 확대되었음.

- 2015년 브라질 경제는 실물경제 위축과 긴축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전망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헤알화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 등으로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15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복잡한 조세제도와 높은 세율,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이로 인한 투자 부진, 수출 둔화 등이 원인임.

- 브라질 정부는 201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GDP대비 1.2%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음.¹⁾
-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연금 및 실업급여 삭감, 증세²⁾ 등을 통해 긴축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과 헤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4년 6.3%에서 1.5%p 오른 7.8%를 나타낼 전망이다.
 -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제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목표(4.5%±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헤알화 환율은 실물경제 위축과 브라질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³⁾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15년 하반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브라질의 경제 불안 지속으로 201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급증한 브라질 국채의 손실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브라질 채권은 1991년 발효된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에 의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으로 관심이 더욱 커진 바 있음.⁴⁾
 - 2014년 기준 해외채권 판매 잔액 7조 8,000억 원 중 브라질 국채 잔액은 5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90.2%인 것으로 나타났음.⁵⁾
- 2011년 이후 평균 브라질 국채 판매가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절세 목적 등으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 10% 이상으로 같은 투자등급에 속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 그러나 헤알화 가치 급락 및 브라질 경제 불안 지속은 브라질 국채 투자의 위험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IMF, 국제금융센터 등)

1) 이에 대해 IMF는 브라질 정부에 공공부채 축소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0.5%p 이상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2) 2015년 2월부터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1.5%에서 3%로, 유류세를 휘발류는 리터당 0.22 헤알, 디젤은 리터당 0.15 헤알 인상하였으며 6월부터 수입품과 화장품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계획임(한국은행(2015. 4. 7), “주요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제여건 평가”).

3) 2015년 3월 말까지 브라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스왑거래(달러매도, 헤알매수)를 통해 헤알화 가치를 지지해 왔으나 스왑 누적규모가 외환보유액의 33% 수준인 1,15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음(국제금융센터(2015. 4. 23), “최근 브라질 경제의 현황과 전망”).

4) 김세중(2013), 「브라질 경제 불안과 시사점」, Kiri Weekly.

5) 머니투데이(2015. 5. 19), “잔액만 5.8조, 금감원 브라질 국채 투자자 출구전략”.